



“EF Global Intern 2010” 우승자, 3 개월 국제 인턴쉽 경력 시작

취리히, 7 월 26 일

세계 최대 교육기관 EF Education First 가 개최한 “EF Global Intern 2010” 우승자 러시아의 안나 불리체바는 EF 본사 스위스 취리히 에서 이번주부터 국제 인턴쉽의 첫걸음을 시작한다. 안나의 EF 인턴쉽은 전세계를 걸쳐 EF 미국 뉴욕지사, EF 일본 도쿄지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뉴스 보도자료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한다:

<http://multivu.prnewswire.com/mnr/prne/efeducationfirst/44184/>

1 만 7 천명이 참가한 이번 컨테스트에서 안나는 창의적인 이력서와 뛰어난 개인 홍보 비디오로 “EF Global Intern 2010” 심사위원단을 충분히 감동시켰다. 심사위원단의 깊은 숙고 끝에 선택된 그녀는 오늘날 오픈 마인드, 세계에 대한 호기심, 도전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가장 뛰어난 후보로 선택되었다.

러시아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는 학생인 안나는 그녀의 비디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매일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요. 세계의 변화와 함께 호흡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긍정적인 자세와 세계에 대한 높은 도전정신은 “EF Global Intern 2010” www.ef.co.kr/globalintern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나는 우승자로 선택된 것을 알았을때, 매우 흥분이 되어서 어떠한 말로도 지금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컨테스트의 우승자 자격으로 안나는 2010 년 10 월에 60 개의 나라에서 진행될 “EF Global Intern 2011”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EF Education First 소개:

1965년에 설립된 EF는 50개국 이상에서 400여개가 넘는 학교와 지사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굴지의 사립교육 기업이다. 해외 언어 연수, 학위 및 문화 교류 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제공: EF Education First

문의: 홍수진 팀장 (+82-(0)2-3452-5210/ joice.hong@ef.com)